

# 운영철 전남펜싱협회장, 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쾌척

‘자랑스러운 전남인 상’ 수상에 따른 500만원 기탁... 개인 기탁액 천만원 이르러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20억 목표 큰 힘... “전남체육 발전 선구적 역할” 다짐

2019년도 자랑스러운 전남인 상 수상자인 운영철 전남펜싱협회장(53)이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을 쾌척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운영철 전남펜싱협회장이 지난 4일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운영철 회장의 기탁은 지난달 25일 제31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에서 ‘2019년도 자랑스러운 전남인 상’ 수상에 따른 전남체육 진흥에 기여코자 하는 ‘전남체육 사랑’ 마음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운영철 회장의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개인 누적 기탁액은 1,000만원에 이르렀다.

특히, 운영철 회장의 기탁을 계기로 전라남도체육회의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은 17억3,600여만원으로 집계돼 당초 목표했던 20억원 달성에도 큰 힘을 얻게 됐다.

다시말해, 운영철 회장의 기탁을 계기로 도내 체육인 및 기업체,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등의 관심도 제고 및 기탁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 때문이다.

덧붙여 연초 (재)보해장학회가 「체육 꿈나무 육성 장학금」 1,200만원을 기탁했고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까지 확대 조성되어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 지급이 뒤따를 경우, 전남 체육영재 발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500만원을 쾌척한 운영철 회장의 ‘전남체육 사랑’은 그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진 출신인 운영철 펜싱협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전남펜싱협회장으로 취임하여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펜싱종목 특성상 전남펜싱의 발전을 위해 매년 사비로 1,200만원 이상의 출연금 기탁은 물론 집행부의 협조를 통해 협회 발전기금을 연 4,000만원까지 확대해 우수선수 장학금 및 지도자 활동비 지급 등 전남펜싱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고 있다.

운영철 회장의 펜싱사랑을 등에 업은 전남펜싱은 이에따라 지난 2009년 90회 체전 이후 8년만인 2017년 98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했고, 99회 체전에서는 금메달 3개, 동메달 2개, 올해 100회 체전에서는 금메달 2개를 비롯해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종합 5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운영철 회장은 거액의 사비를 들여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중국 상해 펜싱 대표팀과의 상호 교차 교류전을 실시해 국제 펜싱계 흐름 및 정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영암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23회 전라남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전남인상을 시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안 푸른외중앙의원 원장, 노동일 아너소사이어티 대표, 운영철 전남펜싱협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가수 허춘화, 박용하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전남도체육회 제공

파악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청소년 펜싱 대표팀 단장, 해외 선수 등을 통해서 전라남도외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무대를 향해 사야를 넓힘으로써 선구자적인 협회 운영으로 전남펜싱의 밝은 미래를 기대케 하고 있다.

운영철 회장은 “그동안 전남펜싱과 전남체육의 발전을 위해 나름 뛰어왔다고 생각하던 차에, 더 열심히 뛰어나려는 의미에서 2019년도 자랑스러운 전남인 상까지 주신 것 같다”며 “전남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전남체육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더욱 더 몰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체육회는 경기력이 뛰어나고,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선수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전남체육 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체육인재장학기금’을 조성·운영해오고 있다.

매년 이자액으로 초 30만원, 중 50만원, 고 70만원, 대학생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난 9년동안 596명에게 2억9천만원의 지급해 왔다.

/오복 기자 boh@

## 장흥군, 16일 ‘제3회 장흥군수배 전국 승마대회’ 개최



장흥군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장흥승마체육공원에서 ‘제3회 장흥군수배 전국 승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장흥군승마협회(회장 이명원)에서 주최·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장흥군이 후원한다.

전국 승마선수 200여명이 출전하며, 고등·대학·일반부와 유소년부 장애물경기, 기사 단·속·연속사, 폴댄싱, 배럴레이싱, 말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KHIS-6(기능능력인증시험) 등 8개 종목으로 경기를 치른다.

각 부문 수상자들에게는 최우수상 200만원 등

총상금 3천여만원과 부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전국대회를 통해 정남진 장흥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치는 말산업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정근 기자

## 제31회 광주시민체육대회 성료

광주여대 등 13개소에서 시민 한마당

광주시민들을 위한 종합 체육대회가 주말 광주 관내에서 열렸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9일부터 이틀간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 빛고을체육관, 보라매축구장, 동림다목적체육관 등 13개 경기장에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31회 광주광역시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시체육회가 주최하고 5개구체육회와 종목단체가 주관하는 시민체육대회에는 검도, 게이트볼, 농구 등 14개 종목별 경기와 2인3각, 단체줄넘기 등 구별 화합 경기에 2천5백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여해 그동안 키운 실력을 뽐냈다.

오순근 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선수들과 동호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된 체육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기호 기자 repf@



제100회 전국체전 성과보고회 원정 체전 역대 최고 성적 기념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원정 체전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영광의 얼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6일 오후 4시 빛고을체육관에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광주광역시선수단 역대 최고 성적 달성 성과보고회(해단식)’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해단식)에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기념으로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시의회, 시교육청 관계자들과 전국체전에 참가했던 선수단 등 5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입상단체 및 선수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만큼 표창 대상자들도 증가했다. 종목별 종합 1-3위 이내 입상종목단체가 지난해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 입상종목단체장과 전무이사에게 각각 공로패와 표창패, 그리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입상팀 감독과 코치, 선수들에 대한 표창도 이어졌다. 배드민턴에서 여고부 국가대표 안세영을 배출하며 금메달 2개를 획득한 김명자 광주체고 감독이 표창장과 포상품을, 검도에서 9년 만에 일반부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김태호 북구청 지도자가 표창장과 포상금을 각각 입상팀 감독과 코치를 대표해 받았다. 또 육상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한 기대주 모일환(조선대 2년), 스쿼시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유정민(동일미래과학고 2년), 배구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한 호남대학교 배구팀 박혜린(호남대 2년)이 입상 선수를 대표해 표창장과 포상금을 받았다. 올해 성적 향상의 큰 원동력이 됐던 우수선수에 대한 장학금도 전달했다. 시체육회는 올해 전문체육분야 혁신(안)으로 우수선수에 대한 육성비 지급 방법을 장학금 형식으로 변경해 지급해 왔다. 육상 김명하(조선대 1년)와 펜싱 양예솔(호남대 3년)이 선수대표로 장학금을 전달 받았다.

한편, 광주광역시선수단은 이번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원정 체전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종합 10위로 최대성적, 33,117점 획득으로 최고점수, 180개의 메달로 최다메달을 획득했다.

/박정오 기자 jopark@

# 틀린그림 찾기

안전띠는 생명선입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